



Belarus

Belarus for Non-proliferation

벨라루스- 핵확산반대

핵무기비확산조약 (NPT)

2015 년 평가회의

뉴욕

2015 년 4 월 29 일

안드레이 답규나스

유엔 주재 벨라루스 대사 발언

핵무기비확산조약(이하 NPT)은 비확산체제 뿐만 아니라 국제 안보 체계 전체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NPT 준수 문제는 전 세계 다양한 현안과 직결된 넓은 문맥 안에서 통찰해야 합니다.

최근 국제안보 시스템은 각종 새로운 균열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모클레스의 칼이라는 핵으로 부터 세상을 해방시키고자는 세계의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와 핵무기 사용 위협은 70 년 전과 다름 없이 아직까지도 현실적인 위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십년간 지속되어 왔고 최근 몇 년 동안 더욱 심각해진 글로벌 신뢰 위기에 있습니다.

다각적 국제관계에서 관습되어 온 '평화와 협력에 대한 연설'은 날로 커가는 국가 간의 의심과 불신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호 억제 시스템의 견고성과 신뢰성에 대한 자살적인 도전이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근본적인 발생 원인을 무시한 채 시시각각 나타나는 새로운 대량살상무기 실제 위협과 가상 위협을 일일이 추적하고 무력화시키는 무의미한 시도에 있을까요?

여기서는 두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타주의적 해결책과 실리주의적 해결책입니다.

이타주의적 방법은 한 국가가 먼저 나서서 '무기를 쟁기로' 만드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그러려면 인간으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용기와 사람의 더 나은 모습에 대한 믿음, 자신만의 관심사만이 아닌 남의 안녕에 대한 배려, 그리고 파트너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20 여년 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가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소련 시절 자국 지역에 비치 되어 있었던 핵무기를 자진 포기한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공포와 외부로 부터의 압력이 아닌 강한 책임감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벨라루스의 경우 특히 이 같은 동기가 국민 마음에 와닿았던 것입니다. 90년대 중반 바로 벨라루스가 중앙-동부 유럽에서 '핵무기 없는 지대' 형성을 제안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쉽게도 벨라루스의 이 선한 의지와 촉구가 외부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타적 동기가 있었기에 벨라루스는 수십년간 유엔에서 새로운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생산 금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부 국가들의 기존

핵무기 현대화 작업이 곧 새로운 대량살상무기, 살상 능력이 더 뛰어난 무기 생산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기가 있었기에 벨라루스는 NPT 를 핵무기 문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돌이킬이 없는 제로'라는 개념으로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은

- 핵무기 현대화를 위한 핵 연구 금지
- 핵무기 경쟁 금지
- 핵실험 금지
- 우리 공동의 집에서 핵무기 금지 입니다.

이러한 이타적인 태도는 매력있고 남에게 용기를 줍니다. 하지만 오늘날 '핵 흑사병'으로부터 인류를 구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비위협적 행동과 우호적 협력 원칙에 기반하여 글로벌 신뢰 및 협력 환경을 실리적이고 점차적으로 조성하는 방법**입니다.

핵보유국이 핵보유 특권을 포기하라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앞서 언급한 쉽지만은 않은 방법을 최우선으로 실천해 나간다면 지구가 핵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조건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뢰 증진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NPT에 언급되어 있는 IAEA의 보장체제입니다.

벨라루스는 이 보장체제 발전을 지지하고 IAEA와의 보장조치 협정에 대한 추가 의정서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계속할 의향을 밝힙니다. 앞으로 보장체제의 발전은 **모든 관심국가가 참여한 열린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IAEA 사무국과 국가간의 실무 협력이 국제법에 기반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NPT에 기반한 비확산 체제의 지속가능성은 IAEA **보장체제의 객관성과 공정성**, 모든 회원국의 지지에 달려 있습니다.

NPT의 중요성은 다른 것 외에도 모든 회원국이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권한을 준다는 의미에도 있습니다.

지난 평가회의 이후 기간은 벨라루스의 원자력 발전 분야에 있어 의미 있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벨라루스는 2년 전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벨라루스의 에너지 안보 수준을 높이고 기술-산업 분야 발전에 활력을 줄 전략 사업입니다.

국가원자력에너지사업을 진행하면서 벨라루스는 IAEA 자문 및 전문가 지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빌어, 벨라루스의 IAEA 규정 및 규범 준수에 대한 의지, 원자력 분야 모든 국제적 의무사항 준수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자 합니다.